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몸이 ㉠ 주거 주거 ㉡ 一百番(일백번) 고쳐 주거
 ㉢ 白骨(백골)이 ㉣ 塵土(진토) | 되어 ㉤ 녀시라도 잇고 업고
 님 向흔 ㉥ 一片丹心(일편단심)이야 ㉦ 가 줄이 이시랴

(나)

이 몸이 죽고 죽어 一百番 고택쳐 죽어
 白骨이 塵土 | 되야 녀시야 잇고 업고
 님 向흔 一片丹心이야 가 줄이 이시랴

(다)

이 몸이 ㉧ 죽어 죽어 一百番 고택쳐 죽어
 白骨이 塵土 | 되야 녀시라도 ㉨ 잇고 업고
 님 向흔 一片丹心이야 ㉩ 줄이 이시랴

(라)

此身死了死了(차신사료사료) 一百番更死了(일백번갱사료)
 白骨爲塵土(백골위진토) 魂魄有也無(혼백유야무)
 向主 一片丹心 ㉪ 寧有(영유) 改理也歟(개리야여)

01

윗글에서 화자가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시적인 신체 훼손의 과정을 나열하여 내면의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다.
- 구체적인 사물의 소멸 과정을 통해 추상적인 가치의 영원성을 부각하고 있다.
- 자연물의 순환 원리를 활용하여 인간 삶의 유한성에 대한 고뇌를 표출하고 있다.
- 세속적인 가치와 정신적인 가치를 대비하여 화자의 현실도피적 태도를 정당화하고 있다.
-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바탕으로 절대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02

밑줄 친 ㉠~㉨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화자가 처한 극한의 상황을 가정하여 결연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 육체적 소멸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정신적 실체를 상징하고 있다.
- ㉢: 외부의 압력이나 시간의 흐름에 의해 변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 ㉣: (가)의 ㉠과 달리 실제적인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려는 심리적 기제를 담고 있다.
- ㉤: 존재의 유무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가치를 지키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뒷받침한다.

03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는 중세 국어의 특징을 보여주며, 반복법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나)는 (가)와 비교할 때 종장의 '가' '을' '가' '줄이'로 구체화하여 의미를 보강하고 있다.
- (다)는 초장의 '주거'를 '죽어'로 표기하며, 종장의 '가' '을' '가' '줄이'로 표기하는 차이를 보인다.
- (라)는 한문으로 번역된 형태로, 원문의 서리적 표현을 '寧有'와 '也歟'를 통해 구현하고 있다.
- (가)~(라) 모두 화자의 육체적 소멸이 정신적 가치의 변화를 수반함을 전제하고 있다.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가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의 회유에 답하여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다. 이방원은 '하여가'를 통해 새로운 왕조 건설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며 '만수산 드령 짚이 얹혀진들 어떠하리'라고 유연한 처세를 제안했다. 이에 정몽주는 '단심가'를 통해 자신의 지조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극단적인 역설과 가정을 통해 드러냈다. 여기서 '님'은 고려 왕조를 상징하며, '일편단심'은 신하로서의 절대적 충성을 의미한다.

- ① '一百番 고쳐 주거'는 이방원의 유연한 제안에 대해 화자가 선택한 가장 강경한 거부의 표현이겠군.
- ② '백골이 진토'되는 상황은 새로운 왕조의 탄생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순응할 수 없음을 시각화한 것이겠군.
- ③ '넉시라도 잇고 업고'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마음을 경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겠군.
- ④ '님 向 一片丹心'은 〈보기〉의 '드령 짚'이 상징하는 타협적 관계와 대조되는 화자의 본질적 가치겠군.
- ⑤ '가 줄이 이시랴'는 회유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선언이겠군.

05

윗글의 '白骨(백골)'과 '塵土(진토)'가 지니는 기능적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극복해야 할 현실적인 장애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 ② 인간의 육체적 유한성을 강조하여 삶의 허무함을 부각한다.
- ③ 정신적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극한의 시험적 배경을 형성한다.
- ④ 임과의 재회를 방해하는 공간적 거리감을 구체화하는 소재이다.
- 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몰락 사이의 괴리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0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수치적 과장을 통해 화자가 처한 가정적 상황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
- ② ㉡: 생명력이 상실된 상태를 제시하여 의지의 절대적 기준점을 설정하고 있다.
- ③ ㉢: 형체조차 남지 않는 완전한 소멸의 단계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 ④ ㉣: 화자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로서, 작품 전체의 정서적 중심점 역할을 한다.
- ⑤ ㉤: 화자의 내면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회의적 의문을 제기한다.

07

윗글의 화자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죽음을 삶의 연장선으로 인식하여 내세에서의 복락을 기원하고 있다.
- ② 죽음을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육체적 고통을 초월하려 하고 있다.
- ③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의 삶에 집착하고 있다.
- ④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보전하려는 명예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죽음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설정하여 정신적 가치의 우위를 입증하고 있다.

08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의 화자에게 조언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방원의 '하어가'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침녕쿨'의 업힘에 비유하며, 명분보다는 실리와 공존을 강조한다. 그는 '우리도 이같이 얹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고 말하며, 경직된 지조보다는 유연한 관계 맺기를 통해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진정한 도리라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한 개인의 결벽에 가까운 충절은 오히려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 ① 개인의 죽음이 지나는 숭고함을 잊지 말고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십시오.
- ② 백골이 진토되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임을 깨달으십시오.
- ③ 일편단심이라는 추상적 명분에 매몰되기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실용적 선택을 하십시오.
- ④ 임을 향한 사랑을 만수산의 첩처럼 넓게 확장하여 더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 ⑤ 역사적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는 용기를 보여주십시오.

09

(라)의 한문 번역 방식과 원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死了死了'는 원문의 '주거 주거'를 첩어를 통해 강조하는 방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 ② '一百番更死了'는 원문의 '一百番 고쳐 주거'를 한자어의 의미적 결합을 통해 충실히 옮기고 있다.
- ③ '魂魄有也無'는 원문의 '넉시라도 잇고 업고'를 영혼의 존재 여부에 대한 철학적 질문으로 변형하였다.
- ④ '向主'는 원문의 '님 向훈'을 목적어와 동사의 어순을 바꾸어 한문의 문법 구조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 ⑤ '改理也歟'는 원문의 '가 줄이 이시랴'에 담긴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서리적 어조를 유지하고 있다.

10

(가)와 (나)의 종장에 나타난 표현의 차이가 주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가 줄이'는 변화의 주체를 모호하게 하여 운명론적 태도를 강화한다.
- ② (나)의 '가 줄이'는 명사형 어미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객관적 사실로 확정한다.
- ③ (가)보다 (나)에서 '줄이'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단호함이 보다 구체적인 문장 성분으로 드러난다.
- ④ 두 판본의 차이는 단순한 표기법의 변화일 뿐, 화자의 정서적 강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⑤ (나)의 표기는 (가)에 비해 임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다.

11

윗글의 '一百番(일백번)'과 '一片丹心(일편단심)'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백 번'이라는 시간적 연속성이 '일편단심'이라는 공간적 확장성으로 전이되고 있다.
- ② '일백 번'의 반복적 시련을 통해 '일편단심'의 순수성이 점진적으로 훼손됨을 암시한다.
- ③ '일백 번'이라는 가시적 수치가 '일편단심'이라는 불가시적 가치의 깊이를 증명하고 있다.
- ④ '일백 번'은 화자의 내면적 갈등의 횟수를, '일편단심'은 그 갈등의 최종 결론을 의미한다.
- ⑤ '일백 번'의 죽음은 '일편단심'을 지키기 위해 지불해야 할 현실적인 대가의 총합을 뜻한다.

12

윗글에 사용된 수사법의 한계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복법을 통해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리듬감 있게 전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② 과장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화자의 진정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 ③ 서리법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화자의 주장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여지를 제공한다.
- ④ 점층적 구조(죽음→백골→진토)를 통해 화자가 처한 극한 상황의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 ⑤ 가정법은 '만약 ~하더라도'라는 조건을 통해 어떤 최악의 상황도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13

㉠ '넋시라도'와 ㉡ '잇고'에 담긴 화자의 태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영혼의 존재를 확신하며 사후 세계에서의 보답을 기대하는 낙관적 태도이다.
- ② 존재의 유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하여 절대적 가치에 몰입하는 초월적 태도이다.
- ③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영혼에 투사하는 기복적 태도이다.
- ④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통해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려는 방어적 태도이다.
- ⑤ 영혼의 영속성을 빌려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전략적 태도이다.

14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 ② '백골'과 '진토'는 화자의 신체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의미한다.
- ③ (가)~(다)의 초장에는 화자가 죽음을 반복해서 맞이하는 상황이 가정되어 있다.
- ④ (라)의 '尙主'는 화자가 충성을 바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⑤ 화자는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의 선례를 인용하며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15

윗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가치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육체적 고통을 인내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신적 해탈의 경지
- ② 물리적 소멸을 초월하여 영원히 지속되는 절대적 충의의 정신
- ③ 개인의 신념과 시대적 요구 사이에서 겪는 지식인의 고뇌와 성찰
- ④ 죽음이라는 자연적 섭리에 순응하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달관의 자세
- ⑤ 임과의 이별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희생적 사랑

01 표현상 특징

정답: ② 구체적인 사물의 소멸 과정을 통해 추상적인 가치의 영원성을 부각하고 있다.

[출제의도]

지문의 구체적 서술(백골, 진토)과 추상적 서술(일편단심)의 대비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② '백골'이 '진토'가 되는 구체적인 신체적 소멸의 과정을 극단적으로 가정함으로써, 그와 대비되는 추상적 가치인 '일편단심'의 불변성과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문의 핵심적인 수사 전략이다.

[오답 풀이]

- ① 신체 훼손의 과정이 나타나기는 하나, 이는 고통의 형상화가 아니라 의지의 강조를 위한 수단이다.
 ③ 자연물의 순환 원리는 지문에 등장하지 않으며, 삶의 유한성에 대한 고뇌보다는 의지가 중심이다.
 ④ 현실 도피적 태도는 화자의 지향점과 거리가 멀며, 임에 대한 충절을 다짐하고 있다.
 ⑤ 초월적 존재에 대한 경외감이나 절대 진리 탐구는 이 작품의 유교적 충의 사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02 시어·구절 의미

정답: ④ ㉔: (가)의 ㉑과 달리 실제적인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려는 심리적 기제를 담고 있다.

[출제의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 시어들이 문맥 속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④ (가)의 '주거'와 (다)의 '죽어'는 표기상의 차이일 뿐, 모두 화자의 충절을 강조하기 위한 극한적 가정의 표현이다. 이를 '죽음의 공포 극복'이라는 심리적 기제로 해석하는 것은 지문의 논리적 맥락에서 벗어난 비약이다.

[오답 풀이]

- ① '주거'는 반복을 통해 화자의 단호한 결의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② '넋시라도'는 백골이 진토가 된 후에도 남는 정신적 요소를 의미한다.
 ③ '가설'은 일편단심이 변하거나 없어지는 것을 뜻하며, 서리법을 통해 부정된다.
 ⑤ '있고 없고'는 영혼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임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음을 강조한다.

03 내용 이해

정답: ⑤ (가)~(라) 모두 화자의 육체적 소멸이 정신적 가치의 변화를 수반함을 전제하고 있다.

[출제의도]

지문의 여러 판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세밀하게 대조하여 이해한다.

[정답 풀이]

- ⑤ 이 작품의 핵심은 육체가 완전히 소멸(백골이 진토됨)하더라도 정신적 가치(일편단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에 있다. 따라서 육체적 소멸이 정신적 변화를 수반한다는 진술은 지문의 주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주거', '되여' 등 중세 국어 표기가 나타나며 반복을 통해 의지를 강조한다.
 ② (나)는 (가)의 '가설 줄이'와 유사한 구성을 취하며 의미를 명확히 전달한다.
 ③ (다)는 (가)와 비교했을 때 모음 표기 등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거나 전체 맥락은 동일하다.
 ④ (라)의 '寧有~也歟'는 한문에서 반어적 의문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구문이다.

04 [보기] 종합 감상

정답: ③ '넋시라도 있고 없고'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마음을 경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겠군.

[출제의도]

역사적 배경과 작품의 상징적 의미를 결합하여 심층적으로 감상한다.

[정답 풀이]

- ③ '넋시라도 있고 없고'는 육체적 죽음 이후의 영적 상태와 무관하게 임을 향한 충성은 변함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마음의 변화 경계'로 해석하는 것은 작품의 숭고한 충의 정신을 세속적인 차원으로 격하시킨 잘못된 해석이다.

[오답 풀이]

- ① '백 번 죽는다'는 가정은 회유에 대한 강력한 거부 의지를 담고 있다.
 ② 신체의 완전한 파괴를 가정하는 것은 어떤 외적 변화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시각화이다.
 ④ '침'의 얽힘(타협)과 '일편단심'(지조)은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⑤ 서리법을 통해 변치 않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05 상징/소재 해석

정답: ③ 정신적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극한의 시험적 배경을 형성한다.

[출제의도]

핵심 소재의 상징성과 작품 내에서의 논리적 기능을 정밀하게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③ '백골'이 '진토'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물리적 소멸의 상태이다. 화자는 이러한 극한의 상황(시험적 배경)을 설정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일편단심'이라는 정신적 가치의 절대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는 화자가 극복해야 할 외부적 장애물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설정한 가정적 상황이다.
 ② 삶의 허무함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허무를 넘어서는 가치를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④ 임과의 거리감과는 무관한 소재이다.
 ⑤ 과거와 현재의 대비보다는 현재의 결의와 미래의 불변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06 ㉠~㉣ 밑줄 설명

정답: ⑤ ㉠: 화자의 내면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회의적 의문을 제기한다.

[출제의도]

밑줄 친 부분의 수사적 기능과 화자의 태도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⑤ (라)의 '寧有(영유)'는 '어찌 ~이 있겠는가'라는 뜻의 반어적 의문문으로, 화자의 의지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표현이다. 이를 '내면적 갈등'이나 '회의적 의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서리법의 기능을 정반대로 이해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백 번'은 실제 횟수가 아니라 무한한 반복을 의미하는 과장법이다.
 ② '백골'은 죽음 이후의 상태로, 의지의 한계를 시험하는 기준이 된다.
 ③ '진토'는 흙먼지로, 완전한 물리적 해체를 의미한다.
 ④ '일편단심'은 이 작품의 주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시어이다.

07 화자·정서 변화

정답: ⑤ 죽음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설정하여 정신적 가치의 우위를 입증하고 있다.

[출제의도]

작품 전반에 나타난 화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통합적으로 고찰한다.

[정답 풀이]

- ⑤ 화자는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는' 상황과 '백골이 진토'되는 상황을 설정한다. 이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 한계인 '죽음'을 극단화한 것이다. 화자는 이러한 한계 상황 속에서도 '일편단심'은 변하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육체(물리)보다 정신(가치)이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오답 풀이]

- ① 내세의 복락이나 종교적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유교적 충의의 세계관이다.
 ② 죽음 자체가 수단이라기보다, 죽음을 가정한 의지의 표명이 핵심이다.

- ③ 현재의 삶에 대한 집착은 지문의 결연한 태도와 정반대된다.
 ④ 명예욕보다는 임에 대한 순수한 충성이 주된 정서이다.

08 [보기] 대립 관점

정답: ③ 일편단심이라는 추상적 명분에 매몰되기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실용적 선택을 하십시오.

[출제의도]

대립되는 관점을 담은 <보기>를 바탕으로 지문의 화자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정답 풀이]

- ③ <보기>는 '실리와 공존', '유연한 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이다. 따라서 윗글 화자의 '일편단심'을 '추상적 명분'으로 규정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이를 내려놓으라는 조언이 <보기>의 입장과 가장 잘 부합한다.

[오답 풀이]

- ① ,
 ② ,
 ⑤ 는 모두 윗글 화자의 가치관을 옹호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기>의 관점과는 반대된다.
 ④ '취'의 비유를 사용했으나, '사랑의 확장'은 <보기>가 말하는 '정치적 실리와 공존'과는 거리가 먼 자의적 해석이다.

09 서술상 특징

정답: ③ '魂魄有也無'는 원문의 '넉시라도 있고 업고'를 영혼의 존재 여부에 대한 철학적 질문으로 변형하였다.

[출제의도]

원문과 한문 번역문의 대응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③ '魂魄有也無'는 원문의 '넉시라도 있고 업고'를 한문으로 직역한 것에 가깝다. 이는 영혼의 존재 여부에 대한 '철학적 질문'으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충성을 다하겠다는 원문의 의지를 한문의 문법적 틀 안에서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死了'의 반복은 원문의 반복적 강조를 잘 살리고 있다.
 ② '一百番(수치)과 '更'(다시/고쳐)의 결합은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한다.
 ④ '넉 향한'은 '향주(주인을 향하다)'로 한문의 술목 구조로 적절히 번역되었다.
 ⑤ '也歟'는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로, 반어적 기능을 수행한다.

10 시어의 미세 차이

정답: ③ (가)보다 (나)에서 '줄이'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단호함이 보다 구체적인 문장 성분으로 드러난다.

[출제의도]

판본 간의 미세한 어휘 차이가 주는 수사적 효과를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③ (가)의 '가실 줄이'와 (나)의 '가실 줄이'는 근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니지만, (나)와 같은 후대 판본에서 문장 성분이 보

다 명확하게 정돈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화자가 부정하고자 하는 '변화의 가능성(줄/줄)'을 문장 내에서 확실한 목적어적 성격으로 제시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정(이시랴)을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오답 풀이]

- ① 변화의 주체는 화자의 '마음'으로 명확하며, 운명론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 ② 의지를 '객관적 사실'로 확정한다는 설명은 문학적 수사법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다.
- ④ 미세한 차이라도 문학적 텍스트에서는 리듬이나 강조의 결이 달라질 수 있다.
- ⑤ 불안감 내포는 지문의 전체적인 결연한 어조와 상충된다.

11 상징적 연결

정답: ③ '일백 번'이라는 가시적 수치가 '일편단심'이라는 불가시적 가치의 깊이를 증명하고 있다.

[출제의도]

수치적 표현과 추상적 관념 사이의 논리적 연결 고리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정답 풀이]

- ③ '일백 번 고쳐 죽는다'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수치(100)를 동원한 과장법이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화자의 내면적 가치인 '일편단심'이 얼마나 견고하고 깊은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수사적 장치이다. 즉, 구체적 수치가 추상적 가치의 증거가 되는 구조이다.

[오답 풀이]

- ① '일편단심'은 공간적 확장성과는 무관한 화자의 일관된 마음을 뜻한다.
- ②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변성이 강조된다.
- ④ 화자는 내면적 갈등을 보이지 않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한다.
- ⑤ '대가의 총합'이라는 경제적 논리는 이 작품의 숭고미와 어울리지 않는 해석이다.

12 표현상의 특징(심화)

정답: ③ 서리법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화자의 주장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여지를 제공한다.

[출제의도]

사용된 수사법의 일반적 정의와 지문 내에서의 실제적 기능을 정밀하게 대조한다.

[정답 풀이]

- ③ 서리법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동의를 강요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확신시키는 수법이다. '가설 줄이 이시랴'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답을 정해놓은 것이지, 독자에게 판단의 여지를 주는 '열린 질문'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주거 주거', '죽고 죽어' 등 반복은 운율과 강조의 효과를 동시에 준다.
- ② '백 번 죽음'은 불가능한 설정이나, 그만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과장이다.

- ④ 신체의 훼손 정도가 심해지는 과정을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 ⑤ 죽음을 가정함으로써 의지의 절대성을 부각한다.

13 시어의 문맥적 의미(심화)

정답: ② 존재의 유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하여 절대적 가치에 몰입하는 초월적 태도이다.

[출제의도]

시에 담긴 화자의 철학적 태도를 미세한 뉘앙스 차이로 변별한다.

[정답 풀이]

- ② '넋시라도 잇고 엮고'는 영혼이 있든 없든(존재 유무의 이분법) 상관없이 임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세속적인 존재의 층위를 넘어서서 오직 '일편단심'이라는 절대적 가치에만 집중하는 화자의 초월적이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오답 풀이]

- ① 사후 세계의 보답을 기대하는 것은 지문의 무목적 총의와 거리가 멀다.
- ③ 기복적 태도는 복을 비는 태도로, 지문의 희생적 의지와 맞지 않는다.
- ④ 고통으로부터의 소외나 방어는 화자의 능동적인 결의와 상충된다.
- ⑤ 전략적 태도는 이 작품의 숭고한 정신적 가치를 훼손하는 해석이다.

14 내용 일치(심화)

정답: ⑤ 화자는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의 선례를 인용하며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보의 유무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 ⑤ 윗글은 화자 자신의 결연한 의지와 가정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될 뿐,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 등 '선례'를 인용하여 설득하는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종장의 서리법을 통해 확신을 드러낸다.
- ② 뼈가 가루가 되는 극한의 소멸 상태이다.
- ③ '일백 번 고쳐 죽어'는 반복적인 죽음의 가정이다.
- ④ '尙主'의 '主(주)'는 임(왕)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한자어이다.

15 주제의식(통합)

정답: ② 물리적 소멸을 초월하여 영원히 지속되는 절대적 총의의 정신

[출제의도]

작품의 구체적 형상화 방식을 통해 궁극적인 주제의식을 통합적으로 도출한다.

[정답 풀이]

- ② 이 작품은 '죽음', '백골', '진토'로 이어지는 물리적 소멸의 과정을 극단적으로 설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편단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유교적 '충의'의 절대성을 형상화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해탈'은 불교적 개념으로, 유교적 충의를 다루는 이 작품과는 거리가 멀다.
- ③ 화자는 고뇌나 성찰보다는 확고한 신념을 보이고 있다.
- ④ 죽음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조차 굴복시키지 못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⑤ 임과의 이별 상황보다는 정치적 회유 상황에서의 지조가 핵심이다.